

계율 익으면 해탈 저절로 온다

증일아함경(하)

사선(四禪)은 그 자체가 계성취(戒成취) 혹은 심수습의 척도이자 과이지만, 아함에서는 이 사선의 단계를 거쳐 다시 삼명(三明)을 얻는다고 함으로써 계→사선→삼명, 즉 계·정·혜 삼학의 구조가 성립된다. 여기에서 삼명이란, 자신의 무수한 전생의 모습을 보는 역숙명지(憶宿命智), 유정의 생사윤회를 보는 유정생사지(有情生死智), 그리고 번뇌가 다하는 멸진지(滅盡智)를 말한다. 삼명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멸진지로, 결국 사선→삼명은 사선을 통해 지혜해탈함을 의미한다.

사선은 세존의 깨달음은 물론 일종(열반)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른바 장부(대반열반경)의 사선열반설이 그것인데, 서론에서 사선(四禪)·사무색정(四無色定)·상수멸정(想受滅定)이라는 구차제정(九次第定)의 순역(順逆)을 거쳐 다시 사선(四禪)을 통해 반열반하신다는 일견 특이한 구조는 불교수행에 있어 사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다. 곧, 그 형식상 원시불교 선정구조의 최종적 형식인 구차제정(九次第定)과 사선이 세존의 입종과 관련해, 그 위상을 결합하지만, 궁극에는 사선에 의해 반열반함으로써 진정한 불교의 수행정신이 무엇인지를 재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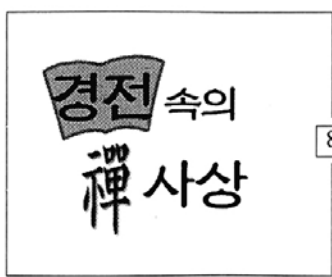
《증일아함경》에서도 이와 동일한 선정구조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대반열반경》

글쓴이



김형준
(동국대 강사)

과는 달리 세존이 아닌 세존의 제자들이 사선에 의해 반열반하고 있다. 즉, 사의 단품 (제18권)에서는, 사리불과 목건련의 사선열반설이, 대에도반열반품(제50권)에서는 대에도(케마)비구니의 사선열반설이 설해지고 있다.



삼학구조·구차제정설 밝혀

세존·사리불 등 4선 열반 보여

먼저 사리불과 목건련의 경우를 보면, 라자그리하로 걸식을 나갔다가 집장(執杖)범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는 목건련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사리불에게 자신은 먼저 열반에 들고자 함을 밝힌다. 이에 사리불은 목건련보다 자신이 먼저 열반에 들겠다며 세존께 허락을 구하고는 구차제정을 순역으로 들러서 마지막 사선에서 나와 비구들에게 그것이 바로 사자본신(獅子奮身)삼매임을 설한 뒤, 고향으로 가 그곳에서 반열반한다. 사리불의 입멸소식을 전해들은 목건련도

세존께 허락을 구하고는 라자그리하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유행하다가 중병에 걸려 열반에 드는데, 그는 맨땅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사선·사무색정·불빛삼매·물빛삼매·멸진정을 순역(順逆)으로 들기를 두 번 거듭하고는 마지막 사선에 의해 반열반에 든다. 이상 증일아함을 중심으로 선사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계(戒)와 선(禪)의 불가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특히 목건련과 사리불, 대에도비구니의 사선열반은 《

대반열반경》에서 보는 세존의 사선열반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있어서 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곧, 사선에 의한 입종은 그گونه 계의 완성자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가 해탈이라는 결과를 내는 직접인이 되고 있음을 라후라에 얽힌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곧, 계율을 잘 지키는 라후라가 여전히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비구들이 그 이유를 세존께 여쭙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계승으로 답하신다.

“그 계율을 완전히 갖추어/ 모든 감각을 잘 단속하면/ 그는 그 길로 차츰 나아가/ 마침내 모든 번뇌 없어지리니(제7권, 화월품)” 곧, 수행자에게 계가 익어갈 때 해탈은 저절로 온다는 뜻이다.

나아가 팔만품(제37권)에서는, 계와 선과 해, 곧 삼학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누룩다어, 마땅히 알아야만 하느니라. 만약에 비구로서 계를 성취한다면 곧 선정을 얻을 것이요, 선정을 얻으면 곧 지혜를 얻을 것이요, 지혜를 얻으면 곧 다문(多聞)을 얻을 것이요, 다문을 얻으면 곧 해탈을 얻을 것이요, 해탈을 얻으면 곧 무여열반(無餘涅槃)에서 멀도하리라. 이로써 계율이 가장 수승함을 밝히느니라.”

곧, 원시불교에 관한 선정이나 지혜는 모두 계를 구족할 때 저절로 생겨나는 수행의 열매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7

마인칭기법

만일 수행자가 유·무정물들의 ‘생성과 소멸’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속되고, 사라지는가’를 고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아무데서도 오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흔한 정형구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수행이 쌓인 후에는 이 정형구가 매우 자명해 지지만, 그러한 수행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몇 마디의 말로 전달할 수는 없다.

하나의 지각은 1초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또다른 지각이 그 다음 순간에 즉시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1시 35분 25초와 28초에 각각 ‘촛불’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촛불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각의 작용이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대상은 다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영속한다는 환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 대상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지각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변할 뿐이며, 우리가 보는 유·무정물들의 특성도 변한다. 마음챙김은 ‘지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른바 흥미가 없지만 실제로 지각하는 것에 관해 관찰한다.

만약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던 중에 거리에서 예쁜 소녀를 언뜻 보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는 시각에서 오는 유희한 감정이라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시각 기관과 시각 대상의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난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인연과 이와 유사한 감정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모이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건이 정지되면 그

모든 대상이 無我임을 알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사물의 실체는 온곳도 간곳도 없어

것은 사라진다. 물론 그것이 오래갈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그것은 그 소녀에 대한 유희한 감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물결처럼 항상 흔들리고 마음챙김을 방해한다.

이제 예쁜 소녀를 보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없었으며, 그것이 정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러한 특별한 시각 접촉으로부터 생긴 이러한 특별한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데서도 오지 않았다. 그 감정은 조건들로부터 결과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되기 전에는 그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사라진 후에는 그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어디 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자명해진다. 마음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건들이 충분히 상호보완된 상태라도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 두통이 어디로 갔지?’라고 흔히 반문하는데, 여기에는 지각과 감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법구경》에서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무아임을 알게 된다면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이른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선승 스즈키씨는 “지혜의 눈은 ‘우리들로 하여금 실재 자체의 기반 속으로 똑바로 꿰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종류의 직관’이라고 설명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과학산책

왼쪽과 오른쪽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기본적인 개념은 실제로 그것을 설명하려 들면 그리 쉽지 않다. 하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새로운 기본 개념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각각의 개념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나 실상 이 개념은 저 개념에 의존하고 저 개념은 이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개념에 의지함이 없이 외계에 있는 생명체에게 오른쪽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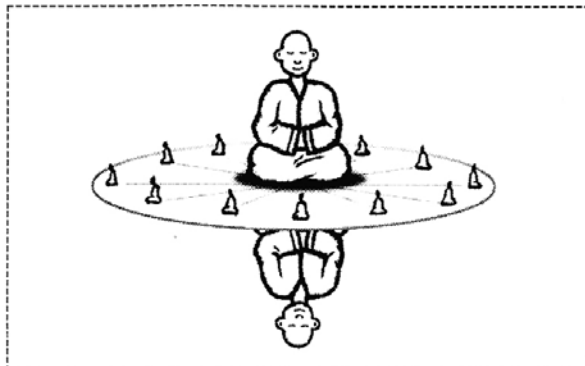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파인먼 교수는 페리티 보손이라고 불리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보기를 들었다. 여기서는 마치요 가루가 지은 (아인슈타인을 넘어서) (전파출판사)에 실려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해 보자. 먼저, 페리티 보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슈뢰딩거 방정식이 모두 그것을 거울로 변환시키더라도 똑같다는 것이다. 물리학의 방정식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두 우주(왼쪽 우주와 오른쪽

우주)는 물리적으로 모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행성의 생명체와 통신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자. 서로는 볼 수 없지만, 서로의 언어를 해독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질문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머리가 하나, 팔이 둘, 다리가 둘입니다.” 그들이 대답한다. “우리는 축수가 둘 머리가 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다음 대화를 하면서 순조로운 대화가 곤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오른쪽에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혼란하게 했다. 그들이 대답한다. “우리는 혼란스럽다. 우리는 ‘심장’의 의미를 이해한다. 우리는 그것이 3개나 있다. 그런데 ‘오른쪽’은 무슨 뜻인가?” “당신도 알다시피, ‘오른쪽’이란 ‘오른손’이 있는 쪽을 말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여전히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이 대답한다. “우리는 손의 개념

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듬이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더듬이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 잠깐 생각한 후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당신의 몸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구심력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사이클을 시계방향으로 돌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 우주인은 “우리는 돌린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계방향’이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당신은 위와 아래의 의미를 아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들이 대답한다. “물론, 위란 우리 혹은 성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쪽이고, 아래란 중심을 향한 쪽입니다. 우리는 위아래를 이해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시계점이 위를



가리키게 한 후 시계방향, 즉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라고 답한다. 여전히 “우리는 위를 이해하고, 시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른쪽’이나 ‘시계방향’이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최후의 시도를 한다. “만약 당신이 북극점에 앉아 있으면 당신의 행성은 시계방향으로 돌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한다. “우리는 극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극점과 북극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결국 우리는 손을 들고 말한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물리학자들은 한때 라디오만 가지고서는 ‘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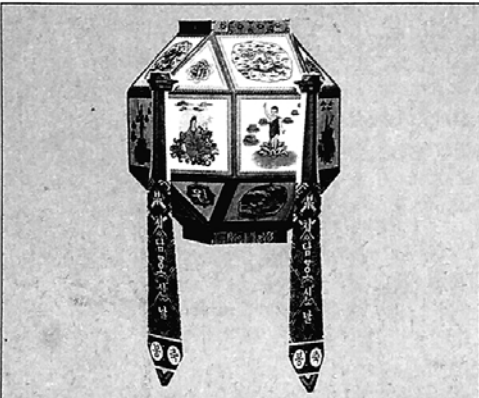
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우리의 심장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세상이 오른쪽을 선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오른쪽이라는 기본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연 중에 시계 방향 또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개념들을 사용한다. 이 같이 많은 개념들은 또 다른 개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사리 절대시하고 고정되게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산품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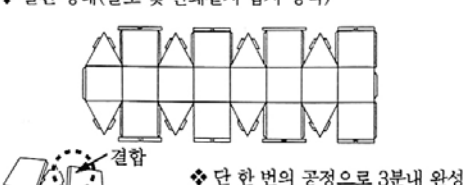
◆ 조별용(8cm, 10cm) ◆ 조별용위에 연임을 붙인 상태 ◆ 연동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방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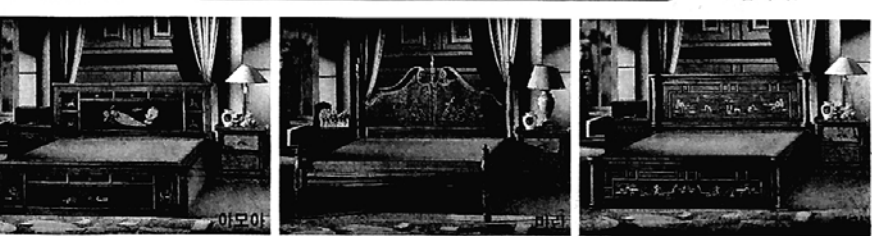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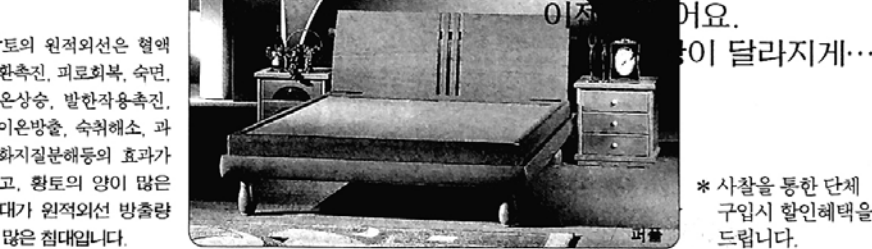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4P 현우기획

몸에는 생기를... 생활에는 윤기를... 아~보아

자연 그대로를 침실에 옮겨드립니다.



아~보아는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서비스와 가격만큼은 물론 효능은 더욱 뛰어납니다.



● 황토 흙대의 명품으로 남겼습니다.
황토의 내구력이 타사제품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섯 두께의 동판을 정복으로 사용하며, 소바까지 직접 휴먼두께, 휴먼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원재료인 병충충대
어섯 최고의 원재료인 병충충대
● 알뜰
상상인부금을 제후 임부판매(최장36개월)
● 여벌
타사제품까지도 완벽한 A/S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보아왕토택침대**
AHBOW MUD BED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5 동화빌딩2층
고객상담실:(02)3431-0322